

또그러네

기획서

영사운드

‘또 그러네’, 제작 기획

노래가 스스로 대중을 찾아가는 전략입니다.

예능, 개그프로, 유튜브, 틱톡, 지역방송, 인스타 릴스,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이,

‘아내와 남편의 갈등과 애정’을 코믹하게 그려낼 때,

무조건 생각날 수 밖에 없는 노래,

무조건 BGM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또 그러네’, 제작 기획

■ 장르

- 유쾌 감성 트로트 / Medium Fast Tempo (125)

■ 대상 플랫폼

-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 릴스, 지역 방송, TV예능 삽입 가능

■ 어필 Target 층

항목	세부 내용
연령대	30대 중반 ~ 50대 초반 (20대 후반까지 서브 확장 가능)
성별	여성 중심, 커플 공감 콘텐츠로 남성 유입도 고려
라이프스타일	부부/연인 간 갈등과 애정을 동시에 느끼는 현실적인 관계 공감층
음악 취향	신나는 트로트, 유쾌한 현실 가사 선호층
소비 성향	유튜브 예능·쇼츠·라이브 공연 소비층 / 커플 또는 부부 대상 토크쇼, 라디오 선호층

■ 노래의 포인트

- 김혜연님 ‘뱀이다~’ 처럼 첫 구절 ‘또 그러네~’ 에서 승부
-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가사가 뒤 따르며 각인 효과

‘또 그러네’, 가사

또 그러네~ 또그러네~ 거기 또 그러고 있네
그렇게도 말했는데 왜 또 그러시나요
뭘 또 그래~ 뭘 또 그래~ 뭘 또 그러시나요
그럴 수도 있는건데 뭘 또 그러시나요

내가 맞네 니가 맞네 그런 일이 많아도
그대랑 나 만나서 다행인걸요
오늘도 한바탕 화풀이 하고서
뒤돌아 생각하니 너무 했었나
그래도 내 남자 당신은 내 남자
지지고 볶더라도 너는 내 꺼야

또 저러네 또 저러네 저 또 저러고 있네
말로 하면 안되나요 매운 맛 좀 볼래요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제발 그만 말해요
신경쓸게 너무 많아 제발 그만 말해요

내가 맞네 니가 맞네 그런 일은 많아도
그대와나 만나서 다행인걸요
오늘도 한바탕 화풀이하고서
뒤돌아 생각하니 너무 했었나
그래도 내 남자 당신은 내 남자
지지고 볶더라도 너는 내 꺼야
지지고 볶더라도 너는 내 꺼야

‘또그러네’ 제작 전략

트로트곡 ‘또 그러네’는 현실적인 연인 혹은 부부의 갈등과 애정을 유쾌하게 풀어낸 가사로 대중에게 강한 공감과 웃음을 동시에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그러네’, ‘뭘 또 그래’, ‘매운맛 좀 볼래요’와 같은 표현은 싸우는 연인들 사이에서 실제로 오가는 대화를 연상시키며, 리듬감 있는 반복 구조로 중독성과 밈(meme) 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높입니다. 한바탕 다투고 나서 ‘너무 했었나’ 하고 후회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남자’라고 말하는 후렴구로써 갈등 속에서도 끈끈한 애정을 담아내며 감정의 입체감을 더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지고 볶더라도 너는 내꺼야”라는 핵심 문장으로 싸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관계의 본질을 재치 있고 따뜻하게 표현해, 현실 커플·부부를 주요 타겟으로 한 마케팅에 최적화하였습니다.

이 곡은 릴스, 쇼츠 등 짧은 영상 콘텐츠와, 립싱크 챌린지, 부부 토크 영상, 연애 공감 콘텐츠 등으로 이어질 수 있게 확장성을 고려 하였습니다. 즉, 가사 자체가 곧 ‘상황극’이자 ‘밈’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짜여 있어, 유머와 공감, 그리고 진심을 모두 담은 마케팅 메시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bout '영사운드'

- 김영선 대표 프로듀서를 중심으로 모인 트로트 전문 음원 제작팀 입니다.
-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매 했을 때 히트 할 수 있는 음악, 음원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음악을 제공 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정상급 가수분들께 어울리도록 최고의 음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 대표 Producer

김영선 : 010-8955-1395

※ Director

박세종 : 010-4741-0379